

# 장흥군, 토요일시장 진입 '예양교' 새로 짓는다

### 사업비 210억원 투입...2025년 완공 목표 공사 진행

#### "예양교,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 광장으로 활용"

장흥군이 노후화된 토요일시장 진입교량 '예양교'를 재가설한다고 밝혔다.

장흥읍 동서축을 잇는 예양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밀집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지역민과 토요일시장 관광객들의 이용량이 많다.

그러나, 교량이 준공된 지 31년 된 노후 교량으로 균열 및 콘크리트 탈락 등 이용자들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 왔다.

장흥군은 이를 해결하고자 사업비 210억 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교량을 건설한다.

총 연장 201m, 폭 16.8m의 토요일시장 진입교량 '예양교' 재가설 공사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이달 착공에 들어간다.

장흥군은 조명, 분수 등 경관시설을 반영해 예양교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전한 통행로 확보, 차량 통행 여건 개선 등의 효과를 얻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토요일시장 진입교량 개설을 통해 군민 상생공간을 조성하겠다"며, "예양교를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 광장으로 활용해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진도군, 전라남도 위생업무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진도군이 전라남도가 주관한 식품·공중 위생관리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평가는 전라남도의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등으로부터 지역사회의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공중위생관리 20개 항목별 평가를 실시했다.

진도군은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도·점검 ▲식중독 예방과 식품 위해 요소 차단 관리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기관표창을 받았다.

특히 2023년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식중독 예방 교육, 상담(컨설팅)을 실시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위생업소들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강화해 깨끗하고 맛있고 친절한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진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 완도해양치유센터 수험생 대상 연말 이벤트 풍성

완도군은 15일 연말연시를 맞아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내년 2월 말까지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수험생 힐링 이벤트'를 운영한다.

수능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들은 베이식 프로그램 1000원, 프리미엄 프로그램 1만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연말까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50% 할인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일반인은 베이식 프로그램을 1만8000원, 프리미엄 프로그램을 6만2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24-25일 해양치유센터를 이용하는 12살 이하 어린이가 10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세트를 증정한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국내 최초로 해수, 해조류, 머드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다. 수압 마사지와 수중 운동을 할 수 있는 딸라스 풀과 해조류 거품 테라피, 머드 테라피, 스톤 테라피 등 16가지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음악으로 강진 알리기 대작전' 한정판 음반 '갬소' 열풍

### 21곡 담긴 음반 1000개 조기 매진

모사업의 일환으로 음악도시 강진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추진된 한정판 음반의 선착순 배포가 조기 마감됐다.

'음악도시, 강진' 한정판 음반은 당초 20일까지 접수받으려던 것을 지난 13일 조기 마감되며 1000개가 매진됐다. 해당 음반은 '음악도시 강진'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다.

지난 1월 문체부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

사업에 선정된 강진군은 '음악도시, 강진' 조성을 위한 대표 사업으로 11개 읍면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콘서트 '오감·오가며 만나는 거리 위의 예술인'을 연간 700회 이상 개최했다.

이와 더불어 강진 지역 고유의 모습을 음악으로 담아낸 창작 공모 '음악으로 강진 알리기 대작전'을 통해 21곡의 신곡을 발표했다.

이번 한정판 음반 발매는 생활 속 음악 문화의 확산과 지역을 주제로 창작문화 독려를 통해 음악도시 브랜드를 이어가고 있는

강진군을 소개하고 노래에 소개된 관광지에 대한 호기심과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 관계자는 "발매된 음원들을 각종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들을 수도 있지만, 강진이라는 도시를 음악으로 소장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며 "주민 삶에 음악이 함께하는 도시, 음악 하며 살기 좋은 강진으로 나아가는데 이번 홍보 프로젝트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강진 이야기가 담긴 음반이 인기다.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공



해남군 매일시장에서는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는 매일시장에(愛)서' 기획행사를 개최한다. 매일시장 상인회에서 시장 입구에 크리스마스 트리과 산타 조형물 등을 설치해 방문객들

## 해남군, 올 크리스마스에는 매일시장에서 만나요

### 해남군 매일시장 연말 기획행사...22일에는 야시장도 열려

올 맞고 있는 가운데 18일부터는 시장 2층에서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해남 신중년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해남 구석구석을 탐방하며 찍은 관광지과 주요 행사 사진 30여점이 전시된다. 특히 22일에는 올해 마지막 야시장이 운영된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매일시장 야시장은 각 상가에서 매일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불거리, 먹거리 풍부한 금요일밤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야시장으로 22일, 거리 공연과 함께 해남에서 만든 수제맥주 판매행사 등이 진행된다. 더불어 행사당일 2만

원이상 구입 영수증 지참시 경품도 준비되어 있다.

'매일시장 산타를 찾아라' 사회관계망(SNS) 인증사진 기획행사도 실시한다. 산타모자를 쓴 상인과 함께 인증사진 후 필수태그(#해남 매일시장 #크리스마스 #산타 #산타가계명)와 함께 인증사진을 올리면 50명에게 1만원 상당의 농수산물을 보내준다.

군 관계자는 "올해 매일시장은 시장의 기능뿐만 아니라 해남의 지역문화가 살아있는 특색있는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운영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진흥원

전라남도